

파견 교환학생 수학 보고서

파견대학	국가	스페인
	대학명	말라가 대학교
파견기간	2023 년 9 월 ~ 2024 년 2 월	
출국년월일	2023 년 8 월 7 일	
귀국년월일	2024 년 2 월 17 일	
프로그램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규 <input type="checkbox"/> 학기제 ※ 파견대학 수학 전공: Filosofia y letras (영어영문)	

1. 출국 전 준비사항

가. 유학생 보험, 비자, 항공권

보험사 비교 사이트에서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보험을 비교 검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인터월드’ 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였습니다. 가격과 만기일 등 기본 정보를 비롯하여 상세조항과 비자 발급에 필요한 조건의 충족 여부 또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페인 비자는 신청부터 발급까지 매우 까다롭습니다. 특히 비자 신청 예약이 아주 어려우니 교환학생 파견이 확정되었다면 가장 먼저 비자 신청일 예약부터 하신 다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저는 한 학기 파견 학생이었지만 혹시 몰라 단기비자가 아닌 장기비자로 신청했는데, 단기비자의 경우 수학기간 연장을 해도 비자 연장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비자를 위해서는 실제 파견 기간보다 더 많은 학업일수가 필요하므로, 공식 파견대학 외에 따로 학원에 수강을 신청해야 합니다. 혹시 수학기간에 대해 여지를 두고 있으신 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항공권은 ‘스카이스캐너’ 어플에서 수시로 가격 변동 추이를 확인하시고 적당한 날짜를 골라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행이나 학원 등 대학 이외의 일정을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무비자 체류기간이 90일이라는 점도 일단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나. 필요 물품(짐 꾸리기)

이런저런 걱정이 앞서 한국에서 최대한 필요한 것들을 구비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페인에 가서도 웬만한 물품은 다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출국할 때는 가급적 짐을 줄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할 만한 것이 있다면 평소 본인과 잘 맞아 사용하고 있던 기초화장품의 여분이나 상비약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파견국 및 파견 대학

가. 파견 국가의 언어, 문화, 물가

가끔 몇몇 상점이나 식당엔 영어 가능자 분들이 계시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스페인어를 사용합니다. 학교에서는 영어 수업을 들을지라도 일상생활에서 스페인어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미리 기초적인 어학공부를 해 놓는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따로 시간을 들여 배우고 가지 않아도 이런저런 상황에 계속 부딪히다 보면 저절로 학습이 되고 저 또한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그 언어를 받아들이고 체득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페인이 열정 가득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가진 나라라는 것은 워낙에 잘 알려져 있지만, 우리 학교의 교류대학이 있는 말라가는 특히나 그러한 도시입니다. 온난한 날씨와 함께 스페인 남부 지역 특유의 느긋함을 고스란히 느끼기에 최적화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기에 한국인 특성상 실생활에서 접하는 느릿한 절차나 일처리 방식에서 약간의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어느새 현지인들과 동화되어 여유로이 스페인 생활을 즐기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나. 파견 대학

나-1. 대학 선택 이유

여행하기 좋은 유럽 내 국가로 가고 싶었던 것에 더하여 교류대학에서 영어 수업 수강이 가능하고 날씨가 좋은 스페인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나-2. 공항 - 학교

도시 내 공항이 있으며 바로 주변에 각종 교통수단이 잘 갖춰져 있어 접근성이 좋고 편리합니다. 시내에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학교 내부까지도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3. 수강신청, 수업내용(프로그램 과정)

대학에서 오는 메일을 잘 확인하고 공지가 오면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영어 수업을 희망하신다면 강의명 뒤에 ‘English’ 혹은 ‘Spanish/English’ 가 써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는 분반에 따라 언어가 다르니 영어를 사용하는 수업 확인 후 강의계획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영어 수업 중 잘 이해가 될 만한 영문학부 수업 두 개와 동양학부의 수업 하나를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서양권 학교에서는 질의응답 등의 진행방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그만큼 참여형 수업이 보편적인 듯합니다. 학생 간에 서로 생각을 나누며 강의내용을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특징이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나-4. 기숙사(홈스테이, 셰어룸 등)

대부분 ‘Idealista’ 어플을 통해 플랫폼하우스를 구하는 편입니다. 원하는 가격대나 공유인원의 성수 등을 설정하여 편리하게 비교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수요가 급상승하는 신학기 시즌에는 가성비 좋은 방을 쉽게 구하기 힘들뿐더러 대다수의 부동산 업체 혹은 집주인들이 연락을 잘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여 될 수 있으면 출국 전부터 조금씩 알아봐 두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그럴 수 없다면 입국 후 신속히 방 탐색에 일념하시기 바랍니다. 또 정말 원하는 방이 있다면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일단 포기하지 마시고 다른 방을 물색하되 계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몇 번의 반복적인 문자 끝에 결국 답장을 받은 사례가 저를 포함하여 정말 많습니다.

나-5. 교내·외 활동

학기 중 교내 국제처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꽤 열리는 편입니다. 특히 학기 초에 열리는 웰컴 파티의 경우 한국인 유학생들은 물론이거니와 다양한 나라에서 파견 온 여타 국제학생들이 정말 많이 참여하니 꼭 신청해서 소통과 교류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버디 프로그램에 신청하면 한 명의 현지 학생과 매칭되어 파견 기간 동안 스페인 생활에 관한 도움을 받거나 따로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버디 프로그램에 신청하는 현지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국제학생들에 대한 호의가 바탕에 있기 때문에 만약 스페인 친구를 사귀는 데 걱정이 있다면 버디 프로그램이 아주 좋은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나-6. 꿀팁(학교생활, 일상생활, 음식, 교통 등)

교내 웰컴파티에 참석하시면 말라가 대학의 굿즈 가방을 받을 수 있는데, 교내 굿즈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같이 줍니다. 그런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횟수한정 없이 두고두고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기 때문에, 기념품으로 말라가대 굿즈를 많이 챙겨오고 싶은 분들이라면 더욱더 웰컴파티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말라가로 파견 온 한국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고 한국인 커뮤니티 자체가 꽤 큰 편이

라 한국인 학생들과 사귄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같은 문화와 언어를 공유하는 만큼 한국인들과 어울리는 게 제일 편하고, 또 그게 안 좋다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만, 굳이 먼 나라로 떠난 이유가 희미해질 정도의 생활은 당연히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의 교류에는 언어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불편함이 있을지언정 그를 모조리 상쇄시키고도 남는 가치가 존재합니다. 짧게라도 여러 사람들과 소통해 보세요.

최고급 돼지고기로 불리는 이베리코는 스페인 원산의 돼지 품종입니다. 즉 최고급 돼지고기를 훨씬 싼 가격에 언제든 맛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베리코는 구이도 하몽도 모두 끝내줍니다. 아마 대부분의 마트나 정육점에 이베리코가 있을 텐데 그 중 Mercadona라는 마트에 팩으로 파는 이베리코가 있는데, 정육 코너에서 직접 받는 것보다 구매하기 편하고 가성비도 좋아 추천합니다. 다 맛있을 테지만 Abanico 부위가 정말 최고였습니다. 제발 이베리코 많이 드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귀국 후에 이 글을 쓰면서도 생각나는 그 맛이 도저히 잊기 어렵습니다.

버스를 많이 이용할 계획이라면 현금이나 트래블월렛 카드보다는 EMT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한 달마다 월별 요금을 충전해야 하는 상품으로 사용했고, 입학허가서를 제시하면 학생 할인요금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좋습니다.

3. 여행 정보(학기 중 또는 학기 종료 후 여행한 곳이 있다면)

귀국 전까지 스페인의 다른 도시들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고루 여행했습니다. 애초에 유럽 내에서는 항공편이 훨씬 싼 편이라 비교적 부담이 적지만 교내에서 ESN 카드를 발급하시면 제휴 항공사에 한해 각종 혜택(ex. 기내용 캐리어 무료 추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추천드립니다.

여행 중 유용한 교통수단 어플로는 ‘Omio’가 있는데요, 국내 혹은 나라 간 동선의 교통편 모두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동수단이 비행기와 기차, 버스까지 종류별로 검색되어 한눈에 비교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스카이스캐너와 비슷하게 비교검색이 장점이지만 예매 시 수수료를 받기에 어플로 교통편을 확인 후 결정하셨다면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검색하셔서 다시 한 번 가격을 비교하시면 더 좋을 겁니다.

또 어딜 가든 소매치기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말라가는 치안이 좋아서 몇 달 지내다 보면 금방 긴장이 풀리고 방심하게 될 수 있어요. 방심 상태라면 더더욱 도난당하는 건 한순간입니다. 어떻게 알았냐구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특히 인과가 물리는 도심에서는 항상 핸드폰 등 귀중품의 위치를 확인하시고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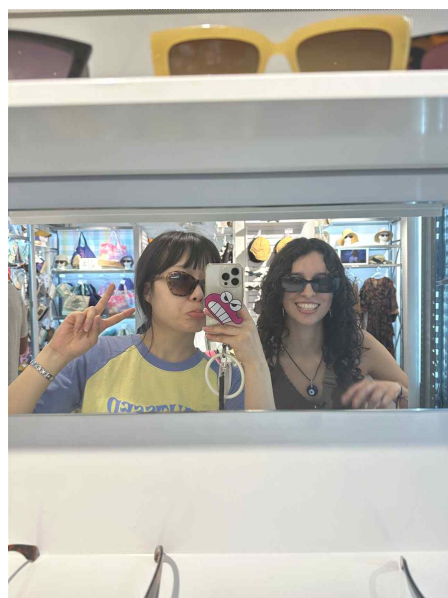
4. 후배들에게 한마디

아무리 얼마 안 되는 기간이라지만 집 떠나 먼 나라에서 생활하다 보면 결코 쉽지 않은 많은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땐 교환학생을 가기 위해 열심히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언어를 공부하며 노력했던 기억, 뭘 먹고 어디를 갈지 생각해보며 설레어했던 기억을 천천히 한 번 되짚어 보며 마음을 다잡으세요! 일생에 한 번뿐일 수 있는 순간을 힘들게만 보낸다면 너무 속상할 테니까요. 외국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건 어려워도 일단 부딪혀 보는 용기입니다. 물론 힘들 수 있지만 그런 사소한 용기와 노력이 쌓여 미래의 어른스러운 모습을 만드는 것 같아요. 혼자 무언가를 잘 못 하던 저도 잘 견뎌내고 좋은 추억만 쌓아 돌아왔으니까요, 후배님들도 반드시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파이팅!! 마지막으로 가서도 꼭 건강 조심하세요! :)

5. 사진 자료 첨부(대학교 전경, Classmate, Activities 등)



(교내 웰컴파티)



(버디와 함께)